

‘가정의 달’ 특수 잡아라... 유통업계 마케팅 총력전

건강식품·할인부터 먹거리·체험형 콘텐츠 등 ‘다채’ 고객 맞춤 프로모션 추진... 쇼핑 편의성·선택 폭 확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먹거리·선물·체험형 콘텐츠 등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며 수요 잡기에 나섰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5월에 가족 중심 기념일이 집중돼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대표적 시즌 맞춤형 행사와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7일부터 13일까지 ‘AI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자출이 불리해는 시기적 수요를 반영해 주요 신선식품과

멜리, 베이커리를 비롯해 시즌 상품까지 할인 범위를 넓혀 체감 가격 낮추기에 집중했다. 먼저 ‘완도 전복’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 50% 할인된 1190원부터, ‘올리버리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1ℓ)’은 반값인 1만7950원에, ‘삼플러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1ℓ)’는 1만4900원에 판매한다. 국내 대형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태국 산 신선란’은 5890원에 한정수량 내놓고, ‘농심 라면’은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

인, ‘스낵·비스킷’은 각 1000원에 10+1 혜택을 더했다. 노르웨이 생연어와 새우튀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홈델리 생연어회&새우튀김’은 멤버십 대상 3000원 할인한 1만4990원에 준비했다. 또 홈플러스 베이커리 ‘몽 블랑제’에서는 ‘정통소보로빵’을 30% 할인한 6080원에, ‘몽스쿠키’와 ‘스윗글레이즈롤’도 모두 30% 할인해 각 9730원, 5590원에 기획했다. ‘갈릭찰파이’는 멤버십 회원에 한해 반값인 3990원에 제공한다. ‘심플러스 딸기잼·블루베리잼’은 각 4990원, 6990원에 팔고, ‘화정당 두바이준 특쿠키 오리지널·스페셜’은 각 9990원에 맞출 수 있다.

‘락앤락·보만 조리가전’은 멤버십 특가로 60% 할인해 1만2720원부터 판다. 여기에 7일부터 10일까지 ‘카네이션 생화’는 20% 할인해 각 8720원, 1만1120원에 내놓는다. 더워지는 날씨에 맞춰 ‘리플·냉감 여름잡구’는 30% 할인한 1만3930원부터 판매한다. 아울러 ‘하이스 기저귀’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홈플러스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 1+1 혜택과 함께 3만2300원부터 구매 가능하며,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14만원 이상 구매 시 마일리지 2만원을 적립해 준다. 백화점도 가정의 달 맞이 고객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가정의 달을 맞아 ‘The Gift of LOVE’ 테마로 1일부터 28일까지 특별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타미힐피거 키즈’와 ‘강폴키즈’ 매장에서는 다양한 할인과 증정품이 제공되는 ‘KIDS SPECIAL BENEFIT’이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아버이날 및 스승의 날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남산농원’에서는 카네이션과 다양한 꽃들로 꾸며진 꽃바구니와 화분에 담긴 카네이션 등 전문가가 엄선한 카네이션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버이날’을 맞아 건강코너에서도 6년 근 흥사를 기반으로 한 건강 선물도 많이 찾는 ‘정관장’이 오는 16일까지 가정의 달 프로모션으로 품목별 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5일까지 10층 상품권 데스크에서 ‘롯데 상품권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현금으로 결제 시 최대 3%까지 추가 상품권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상 상품권 패키지를 현금 구매 시 금액대별로 1~3%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한정 수량 증정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정의 달은 연계 소비가 뚜렷하게 나타나 선물·선물·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전략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기별 소비 흐름에 맞춘 기획을 통해 쇼핑 편의성과 선택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광주예당 등 전국 공연장·예매 플랫폼 유료 멤버십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광주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전국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등의 ‘부당 환불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정된 조항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이다.

최근 공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인기 공연의 경우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우선 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 최근 3년간(2023~2025년) 공연시장 총 티켓 판매액은 2023년 1조2696억원에서 2024년 1조4537억원, 지난해 1조732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국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 수는 2023년 11만8000명, 2024년 13만2000명, 지난

해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공연 유료 멤버십 활성화 추세에 맞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도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 여부 심사에 나섰다. 심사 대상에는 광주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인더파크 등 2개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중 광주예술의전당의 경우 환불 제한, 이용자 귀책 결합 시 면책, 게시물 일방 삭제, 약관 변경 통지 생략 등 6개 유형에서 불공정 약관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실제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개정됨으로써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유통성 기자 yo1404@



롯데백화점 광주점, ‘여행용 캐리어’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여행 떠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여행용 캐리어 이월 상품 특집전’ 행사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화물용, 기내용 캐리어 뿐만 아니라 백팩, 서류 가방 등 다양한 스타일과 크기의 상품을 30~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국가계약 보증금을 완화... 기업 부담 덜다

15%→10%...안전계약 댄 인증기업만 입찰자격 부여

앞으로 국가계약에서 공사계약 보증금이 인하된다. 안전 관련 계약은 전문성과 인증을 갖춘 기업에만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률을

10%에서 5%로 낮출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쟁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입찰에만 허용되던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이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관련 인증과 전문인력,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이나 입찰 담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 받은 업체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계약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일부 비목의 가격을 입찰 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비목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후 원가검토 과정에 앞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도록 했다. 비목 비중이 더 큰 경우에는 감사원 통지도 의무화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